



중국 쓰촨성 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

박현정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(hjpark@kiep.go.kr, Tel: 3460-1203)

방호경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전문연구원 (bassgu@kiep.go.kr, Tel: 3460-1126)

오승환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(ohsh@kiep.go.kr, Tel: 3460-1228)

- 1. 최근까지의 피해 상황
- 2. 쓰촨성 지진의 경제적 영향
- 3. 시사점

주요 내용

- ▶ 지난 5월 12일 32년 만에 가장 큰 강도인 리히터 규모 8.0의 강진이 중국 쓰촨성에서 발생하여 인적/물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며, 여진으로 인한 2차 피해 확산도 예상되는 상황임.
- ▶ 막대한 인명과 재산 손실에도 불구하고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중국 경제 전체의 손실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.
 - 쓰촨성 지진이 산업생산과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가능성은 있지만, 중국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쓰촨성의 비중이 낮아 중국의 GDP 성장, 건축정책 기조, 주식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.
 - 다만 일부 식품 및 에너지 생산에서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, 물가 상승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있음.

- ▶ 쓰촨성 지진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, 쓰촨성에 대한 한국의 무역과 투자도 매우 적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.
- ▶ 그러나 향후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식품/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져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쓰촨성 지진의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.
- ▶ 서부대개발 계획 추진으로 원래부터 고정자산투자가 크게 늘고 있던 쓰촨성에서 복구 사업이 본격화되면 투자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됨.
- ▶ 중국은 향후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선진적 건설기술의 도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.
 - 따라서 양질의 인적자원과 기술경쟁력을 갖춘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쓰촨성 복구사업 참여와 관심이 필요함.

1. 최근까지의 피해 상황

- 지난 5월 12일 중국 쓰촨성(四川省) 원촨(汶川)에서 리히터 규모 8.0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, 5월 27일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음¹⁾.
-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, 쓰촨성의 산업시설 집중도가 높지 않아 재산 피해 규모는 미국의 카트리나 사태나 일본 고베 지진보다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추산됨.
 - 중국 국무원 발표에 의하면, 5월 27일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사망 68,109명, 부상 364,552명, 실종 19,851명이며, 이재민은 1,500만 명에 이룸.
 - 5월 16일 미국 재난 평가회사인 에어 월드와이드가 발표한 중국 지진의 피해규모는 200억 달러로 미국의 카트리나 피해 700억 달러, 일본의 고베지진 1,400억 달러 보다 작은 것으로 추정됨.
-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1,500억 위안으로 추산되며, 쓰촨성 주변 10개 성, 시(省, 市)와 434개 현이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음(중국 과학원)²⁾
- 산업시설 피해규모는 670억 위안으로 추산되며, 에너지·전력 부문의 국유기업과 외자기업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됨(중국 과학원). 서비스 중에서는 여행서비스 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됨.
 - 중국 최대 석유업체인 중국석유(CNPC)는 지진으로 인한 유전과 가스전의 송유관, 기름탱크 등의 파손으로 17억 8,000만 위안의 손해를 입었으며, 중국석유의 자회사인 페트로차이나는 30억 위안, 시노펙은 20억 위안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.
 - 국가전력망공사(国家电网公司), 중국화력그룹(中国华能集

团), 중국 화공(中国化工集团), 동방전기(东方电气集团) 등 4개 국유기업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됨.

- 쓰촨성 내 금융기관의 경우 현지 분점 및 지점 간의 네트워크 시스템에 손실을 입어 농업은행, 중국은행, 교통은행이 각각 85억 위안, 1억 6,000만 위안, 5,000만 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입음.
- 중국의 대표적 TV 생산업체인 창홍(长虹)과 인텔, 도요타 등 쓰촨성의 대표적 외자기업의 생산공장 가동이 중단됨.
- 여행서비스 산업피해액은 5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, 교통·통신시설 파괴로 여행서비스산업이 정상을 되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(쓰촨성 여행국).
- 현재까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,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인명피해와 물질적 피해는 더욱 늘어나 중국 과학원이 추산한 피해규모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임.

2. 쓰촨성 지진의 경제적 영향

- 쓰촨성이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중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.
 - 쓰촨성의 인구는 약 8,100만 명으로 중국에서 약 6.2%를 차지하나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지 않아 지진으로 인해 중국경제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.
 - 다만 육류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식량 및 에너지 일부품목의 생산량에서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.

가. 경제성장률

-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산업설비 및 인프라시설 손실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시기의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일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음.
 - 자연재해가 민간부문의 지출을 직접적으로 감소시켜 단기적으로 GDP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는 있으나, 재해복구를

1) 이 가운데 6.0 이상이 한 차례, 5.0~5.9의 사이의 여진이 두 차례, 4.0~4.9사이의 여진이 세 차례 있었음.

2) 중국과학원은 쓰촨성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1,500억 위안, 붕괴된 건물은 536만 채, 파손된 건물은 2,100만 채로 전망함. 도로 파손은 쓰촨, 간수, 산시, 충칭, 허난, 후베이, 윈난 등 7개 성시 32,939 km에 달함(5월 27일 기준).

위한 건설부문의 투자 증가, 생산·물류시설 복구 등은 오히려 GDP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.

- 예컨대 피해규모가 컸던 일본 고베지진과 미국 카트리나의 경우 재해 발생으로 인해 해당 분기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0.8%와 2.9%로 낮아졌으나 다음 분기에 2.5%와 3.3%로 증가하였음.

■ 쓰촨성 지진이 산업생산과 민간소비를 위축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켜 중국 GDP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,³⁾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.

- 2007년을 기준으로 중국 주요 경제지표에서 차지하는 쓰촨성의 비중은 매우 낮음(표 1 참고).

표 1. 주요 경제지표별 쓰촨성(충칭시 포함)의 비중(2007년)

| 구분 | GDP | 수출 | 고정자산 투자 | 소비 | FDI 이용액 | 산업 생산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
| 쓰촨성 비중 | 5.9% | 1.0% | 6.9% | 6.4% | 2.4% | 3.5% |

자료: CEIC.

- 2008년 1/4분기 중 중국경제는 소비 및 투자의 높은 증가세⁴⁾로 10.6%의 성장을 기록하였고, 향후에도 소득증대로 인한 내수소비 확대와 투자증가를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⁵⁾

■ 일부에서는 지진복구사업 등의 영향으로 투자가 확대되어 오히려 중국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.

- 중국 서부 대개발계획 추진으로 쓰촨성에 대한 고정자산투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데다⁶⁾ 복구사업이 본격화되면 투자성장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임.

나. 물가상승

3) 申銀증권은 쓰촨성 지진피해로 인한 경제손실이 지난 1월의 폭설 피해규모를 상회하면서 2008년 경제성장률이 0.2%p 이상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고, 申銀증권은 이번 지진으로 중국의 GDP 성장률이 0.4~0.7%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.

4) 2008년 1/4분기 중국 경제는 수출 성장률이 21.4%로 전년동기대비(22.2%) 다소 둔화되었으나,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각각 20.9%와 25.9%를 기록하여 예상을 상회하는 10.6%의 성장을 기록함.

5) 중국의 1/4분기 경제실적 발표 이후 주요 기관들은 중국의 2008년 경제성장률을 상향조정하였는데, JP Morgan은 10.3% → 10.5%, Goldman Sachs는 10.0% → 10.5%로 상향 조정함.

6) 중국 전체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쓰촨성의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4.3%와 4.4%(충칭시를 포함할 경우 6.7%와 6.9%)를 차지하였으나, 2008년 1/4분기에는 5.6%(충칭시 포함 8.1%)로 늘어났음.

■ 단기적으로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음.

- 쓰촨성은 중국의 주요 농업생산지역으로 곡물, 차, 채소, 육류 등의 생산 비중이 상당하며, 천연가스, 알루미늄, 납, 아연의 주요 생산지역으로 관련제품에 대한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충분함(표 2 참고).

표 2. 중국 식품 및 비철금속 생산에서 차지하는 쓰촨성의 비중

| 구분 | 천연가스 | 알루미늄 | 납 | 아연 | 작물 재배면적 | 식량 생산 | 육류 생산 |
|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쓰촨성 비중 | 28% | 8.6% | 10.5% | 5.5% | 6.5% | 6.9% | 16.1% |

자료: 국가통계국.

■ 일부에서는 지진 피해지역이 대부분 산악지대여서 농업과 축산업, 비철금속 생산에 대한 피해가 크지 않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.

- 쓰촨성의 핵심 농업생산지인 청두평원(成都平原)은 지진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, 이번 지진으로 폐사한 돼지의 수(200만 두)는 중국 전체 1년 돼지 도축두수의 약 0.4%에 해당함.

- 지진으로 인한 알루미늄 생산 감소분은 약 60만 톤, 납과 아연은 약 35만 톤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전국 총 생산량의 4%와 8.75% 정도로 손실이 예상보다 작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
■ 그러나 지진으로 인해 도로, 수리, 전력 등 농업기반 시설이 파괴되고, 공장설비 파손⁷⁾이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운 데다 계속되는 강한 여진⁸⁾으로 인한 2차 피해(생산능력 회복 지체, SOC 복구 지체, 전염병 등)로 물가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가중될 가능성이 있음.

- 예컨대 쓰촨성 주변지역인 간수성(甘肅省)과 산시성(陝西省)을 합한 아연 생산량은 중국 전체의 약 20%를 차지하고 있어 지진과 여진의 후유증으로 이들 지역의 아연 손실이 추가된다면 충격이 더해질 수 있음.

7) 쓰촨성에 위치한 중국의 대표적인 알루미늄 생산공장인 A-Ba(阿坝) 알루미늄 공장은 생산능력 2만 톤이 파괴되고 신규 생산능력 10만 톤의 설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짐. 또한 중국 9대 아연생산업체인 Hongda(宏达)의 경우 지진 발생 후 생산능력의 80%가 중단되고 약 3억 9,000만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입었음.

8) 지난 5월 25일 쓰촨성 칭촨현(青川縣)에 6.4의 강한 여진이 발생하는데 이어, 27일에는 칭촨현과 산시성(陝西省) 닝창현(寧強縣)에 각각 5.4와 5.7의 여진이 발생하였음.

- 한편, 지진 직후 국제 식품 및 비철금속의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으나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있음.
- 런던 금속거래소(LME)의 국제 아연 선물가격은 지진 발생 직후 5.5% 폭등하기도 하였으나 국제 금속시장에 대한 지진의 영향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19일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음.
- 그러나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원자재에 대한 수요증가로 국제가격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음.

다. 긴축정책

- 중국은 현재 지진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통화긴축정책을 완화하고 있음.
- 중국 국무원은 피해지역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올해 700억 위안 규모의 재정지원책을 발표하였고,⁹⁾ 쓰촨성 지진피해 주민에 대한 구호 및 방역사업 등을 위해 250억 위안의 자금을 배정함.
- 이어 세금감면 등 후속책(금융기관의 영업세, 기업 소득세 하향조정 등)을 마련 중임.
-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는 피해지역의 국유기업과 개인에 대해 대출상환연기와 특혜금리 대출, 연체대출에 대한 벌칙성 금리 적용 배제, 피해지역 은행권에 대한 지급준비율 인상 제외¹⁰⁾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.
- 지진으로 인한 인명사망과 기반시설의 피해가 심각하지만 중국 전체 경제성장률에 대한 영향은 매우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중국의 긴축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임.
- 현재 '경기과열 진정과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'라는 점에서 긴축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며, 지급준비율 인상, 공개시장조작 및 금리인상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임.

9) 2009년과 2010년에도 상응한 규모의 자금을 배정기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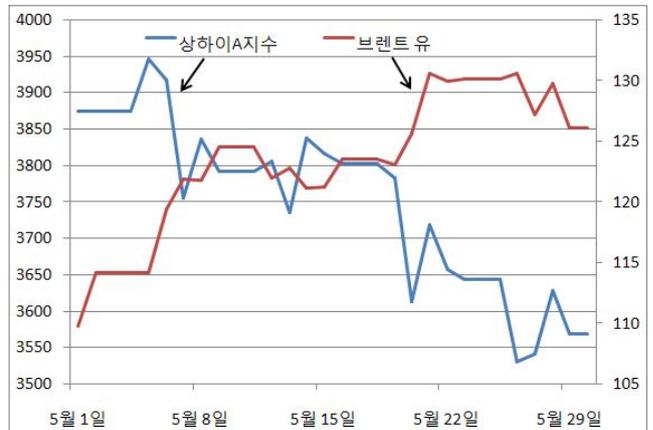
10) 중국 인민은행은 지급준비율을 5월20일부터 16%에서 16.5%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, 주요 지진피해지역에 대하여는 자금공급 원활화를 위해 당분간 지급준비율을 16%로 적용하기로 결정함.

- 중국 국무원은 급속한 경기후퇴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물가안정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을 밝혔으며, 중국 인민은행도 「2008년 1/4분기 통화정책보고서」에서 인플레이션 억제가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였음.

라. 증시

- 5월 12일 지진 발생 직후 쓰촨성에 연고를 둔 45개 상장기업의 거래가 중지되었지만,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은행간 콜금리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음.

그림 1. 상하이 A증시와 국제유가 추이(2008년 5월)



자료: Bloomberg.

- 지진발생 이후 현재까지 상하이 증시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증시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진보다는 국제유가 강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임(그림 1 참고).
- 쓰촨성 경제에서 원자재와 농산물 등의 기업 비중은 크지만, 제조업체와 금융산업의 비중은 크지 않은 만큼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견해임.
- 다만 계속되는 여진으로 인해 쓰촨성 지진 발생에 따른 경제적 손실의 추산이 어렵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임.
- 지난 5월 21일 투자은행인 Credit Suisse는 쓰촨성 강진 여파로 상하이 종합지수의 하락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¹¹⁾한 바 있음.

11) Credit Suisse는 3500선이 붕괴된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8년 말까지 21% 가량 추가 하락(2700선)할 것으로 전망하였음.

3. 시사점

■ 중국 쓰촨성 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의 경제성장, 물가, 거시경제정책(금리, 환율 등)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,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
-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, 중국의 GDP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3/4분기와 4/4분기에는 중국경제가 지진 충격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-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중국의 긴축적 거시경제정책의 기초를 바꿀 정도는 아님.
- 최근 지진발생 이후 상하이 증시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이는 지진 충격보다는 국제유가 강세 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임.

■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쓰촨성의 비중은 매우 작아서 이번 지진이 한국의 대중국 교역과 투자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.

- 2007년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에서 쓰촨성의 점유비중은 0.4%에 불과함.¹²⁾
 - 쓰촨성은 중국의 31개성에서 15위의 수입규모를 보이며 0.7%의 낮은 점유비중도를 보임.
-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0.5% 수준임.¹³⁾
- 쓰촨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 역시 전체 누계 투자건수와 투자액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.4%에 불과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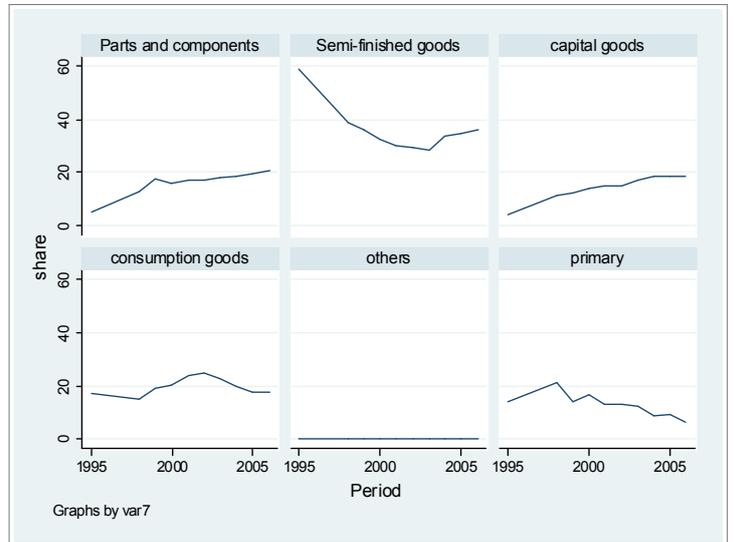
■ 그러나 쓰촨성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작업이 시작되면 농산물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, 쓰촨성 지진이 중국 및 세계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향후 면밀히 관찰해야 함.

-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식료품 수입 가운데 20% (일본과 미국은 각각 18%와 5%)가 중국산이고 최근 확대

추세를 보이고 있어, 중국산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¹⁴⁾

- 또한 일부에서는 “쓰촨성 대지진이 원유와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아직은 없지만 복구작업이 시작되면 국제원자재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며, 이미 임금상승으로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이번 지진의 영향으로 중국발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”을 지적한 바 있음.¹⁵⁾
-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원료(primary)의 점유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(표 3 참고)여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겠으나, 아연 등의 비철금속 가격상승에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음.
- 한편 중국 내 물가상승 압력이 한국의 대중국 수입에서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부(분)품과 자본재에 영향을 미쳐 한국의 대중국 수입단가를 상승시키는 간접적 영향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요구됨(표 3 참고).

표 3. 한국의 대중국 수입상품 구조(1995~2006년)



자료: UN COMTRADE Database [online]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.

- 다만 쓰촨성 지진 이전에도 이미 세계적·국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지진으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12) 한국의 쓰촨성 수출품목은 대부분 자본재(36.0%)와 중간재로 구분되는 준내구재(21.7%) 및 부(분)품(21.7%)으로 분석됨(한국무역협회 자료를 이용하여 필자 계산). 산업별로 구분하여 보면, 정밀기기(33.9%), 식유화학(28.5%) 및 반도체(20.1%)가 대부분을 차지함.

13) 2007년 기준으로 한국의 쓰촨성 수입의 대부분이 중간재에서 준내구재(83.6%)로 분류되는 품목이고, 산업으로는 기타화학(41.7%), 철강 및 금속제품(17.9%), 섬유가죽 등(8.9%)으로 구성됨.

14) UN의 BEC(Broad Economic Categories) 분류방식에 기초하여 UN COMTRADE Database를 이용하여 계산. BEC 분류방식에 따르면 식료품(Food and beverages)은 BE-1로 규정됨.

15) 노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.

- 한편 중국 쓰촨성 지진에 따른 각종 건물 및 SOC 파괴로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쓰촨성 복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늘릴 수 있을 것임.
 - 해당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쓰촨성 SOC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됨. **KIEP**
- 최근 서부대개발 전략으로 중국 서부지역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쓰촨성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데¹⁶⁾ 이번 지진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쓰촨성의 각종 건물 및 SOC 복구에 선진적인 건설기술 도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됨.

16) 서부지역에 대한 고정자산투자에서 쓰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과 2007년 19.6%에서 2008년 1~4월 동안 27.2%로 증가하였음(충칭시를 포함할 경우 31%에서 40%로 증가함).